

## 일본정부의 TPP 교섭체제 가동과 FTA전략

일본정부는 범정부조직을 만들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교섭에 총력체제로 임할 방침임. 성장전략과 안보면에서 TPP를 축으로 삼고 있는 노다 정권은 한·중·일FTA로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절충하는 한편, 2국간 FTA에도 탄력이 붙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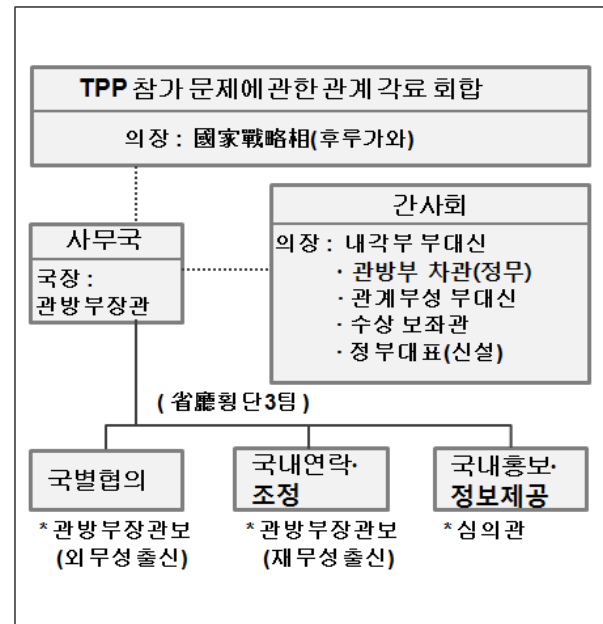
### □ TPP교섭을 위한 범정부조직 설치

- 일본정부는 13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교섭참가를 위한 관계국들과의 협의를 위해 범 부처조직(3개 팀)을 설치하고, 협의를 전담할 정부대표도 두기로 결정함. 한마디로 중앙부처가 총동원되는 총력체제로 교섭에 임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경제재정·국가전략상을 의장으로 하는 각료간담회를 설치. 신설 각료간담회 산하에 내각부의 이시다 카츠유키(石田 勝之)를 의장으로 하고, 관방 부장관, 관계부처의 부대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간사회를 설치하는 한편, 사무국은 타케토 시마코토(竹 歳誠)관방부장관이 맡게 됨.
- 사무국 밑에는 새로운 3개 팀이 만들어짐. 이들 팀은 각각 국별 협의담당, 국내 조정담당, 국내 홍보담당으로 관계 부처에서 총 50명 규모로 발족될 예정임. TPP관계국들과의 협의에서 국내 이해 조정, 대국민 홍보·정보제공까지를 전부 관료들이 일원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셈임.

## □ 국내 조정팀은 홍보·정보제공팀과 연대

- 3개 팀 중 농업강화책 등을 담당할 국내연락·조정팀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업무도 수행하게 됨. 수입품과의 경쟁격화에 대한 우려, 예외품목의 취급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홍보·정보제공팀과 연대

- 다만, 논의가 구체적으로 확산 되면 TPP 반대파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음. 이와 관련,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에 의하면 농수산성이 직접 나서기 어렵고 수상 관저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정부도 재무성 출신자 등 내각관방 중심으로 팀을 짤 것으로 예상



출처: 닛케이신문

## □ 미국의 동의를 변수

- 국별 팀에는 TPP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별로 담당하게 됨. 일본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9개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나 의회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는 미국과의 절충이 성패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큼.
- 마감시한인 내년 1월 13일 이후, 미국정부는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진척시킬 예정으로 미·일정부간 본격적인 대화는 그 이후가 될 것임.
- 다만, 겐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금년 중에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이 있음을 지적.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신설되는 팀이 담당할 가능성도 있음. 미국과의 절충에서는 우정(사업), 자동차시장, 쇠고기 등 3개 분야가 중요

## □ 범정부조직의 사령탑은 정부대표가 담당

- 정부대표는 간사회 멤버로서 범부처 조직인 3개 팀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사령탑임.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터프한 교섭전문가가 필요하며, 반드시 정치가라야 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 외무성 OB중에서 선임할 생각을 비침. 일본이 협정교섭에 정식 참가할 전망이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정부대표를 결정할 방침임.

## □ 한·중·일 FTA와 TPP 간의 균형

- 경제연대를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내걸고 안전보장면에서도 TPP를 축으로 삼고 있는 노다 정권은 한중일FTA로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절충. 한·중·일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에서 교섭개시 방침을 설정하고 내년 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식 확인할 예정
- 최근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강한 경계감이 뚜렷해짐. 일시 정체기미를 보였던 한중일 FTA가 움직이기 시작한 배경과 관련하여, 한 정부고위관계자는 “TPP교섭의 참가의사를 밝힌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음.

## □ 2국간 FTA에도 탄력 붙여

- 일본 경제신문에 의하면, 핵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과 인접, 안보위협이 큰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국간 FTA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다국간이 주류가 되면 매몰될지도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중단된 한일 FTA교섭도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하고 있음.

- 또한, TPP교섭 멤버이기도 한 호주와의 EPA교섭 움직임도 있음. 일본과 호주 간에는 20일부터 켄베라에서 10개월 만에 EPA교섭이 재개, TPP교섭 참가표명으로 2국간 경제연대에도 탄력이 붙고 있음.

<참고자료 >

일본경제신문(12.13,14)

동경신문(12.14)